

## 2007 한·중 교류의 해를 맞아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

2007년을 맞아 각하와 중국 국민 여러분에게 신년 인사를 전합니다. 새해가 큰 축복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

올해는 양국관계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'한·중 교류의 해'입니다. 경제·학술·문화·체육·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. 본격적인 국민 간 교류·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게 될 것입니다.

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역상대국이자 투자대상국이 되었습니다. 매일 1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, 서로의 문화를 함께 즐기는 가깝고 친근한 이웃이 되었습니다.

이러한 양국 간 우호협력이 올해 활발한 교류행사를 통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. 2003년 각하와 합의한 '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'를 더욱 심화시켜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

각하의 건강과 중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